

국내·외 북한 인접지역에서 조생종 벼의 출수 생태 분석

황흥구^{1*}, 문현팔¹, 조수연¹, 오명근², 정응기³

¹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북방농업연구소

²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

³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

[서론]

북한의 농업지대별로 적응하는 벼품종을 선별하기 위해 북한 인접 지역인 국내 3개소와 중국 동북지역 3개소에서 국내 육성 품종과 북한 수집종을 대상으로 벼 출수기 생태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- 시 험 지: 2개국 6개소, (한국) 수원, 철원, 진부, (중국) 단동, 용정, 훈춘
- 시험품종: 72품종(국내육성 조생종 68, 북한수집종 4)
- 재배방법: 지역별로 현지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음

[결과 및 고찰]

국내에서 시험된 품종들의 평균출수일수 범위는 86~118일이었으며 출수일수별로 극조생종(94일 이전), 조생종(95~100일), 준조생종(101~105일), 중생종(105일 이후)으로 출수생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, 중국에서 시험품종의 출수일수 범위는 102~127일이었다. 현지 대비품종들의 출수기를 감안하여 시험품종을 극조생종(110일 이전), 조생종(111~116일), 준조생종(117~122일), 중생종(123일 이후)으로 출수생태를 구분하여 현지의 생태반응을 분석하였다.

‘수원’ 등 국내 3개소에서 출수기의 변이계수는 4.8~18.5%이었고 변이계수가 6.0 이하인 품종은 태봉, 내풍, 화동, 운장, 인월, 진봉, 운봉, 금영, 삼천 등 10품종이었다. ‘단동’ 등 중국 3개소에서 출수기의 변이계수는 국내보다 낮은 0.5~8.1%로 변이계수가 2.0이하인 품종은 태성, 진부찰, 중모1001, 오봉, 새상주, 중모1011, 삼천, 남원, 길주1호(북한수집) 등 9품종이었다. 한국과 중국의 6개소에서 출수기 변이계수는 8.7~13.3%의 범위를 보였고, 변이계수가 9.5%이하로 낮은 품종은 국내육성 품종 남일, 둔내, 화동, 진부찰, 설레미, 중모1011과 북한 품종인 길주1호, 오포1호 등 8품종이었다. 본 시험은 년차간 출수반응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북한에서 적응성이 높은 품종선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26572018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31-447-9143, E-mail. ricehgg@naver.com